

唐代河南詩韻의 上去合韻에 관한 小考

朴柔宜^{*}

◁ 目 次 ▷

1. 緒論
 2. 本論
 - 2.1 上聲과 去聲이 合韻되는 現象 분석
 - 2.2 全濁上聲字의 出現 現象 분석
 - 2.3 同 時期 餘他자료와의 比較 분석
 3. 結論
-

1. 緒論

중국어의 음절구조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 중의 하나가 성조이다. 이러한 성조는 기본적으로 푼의 높이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한 푼의 강세와 푼의 길이에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역사음운론적인 관점에서 성조는 성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실제로 다수의 학자들이 성조는 성모의 淸濁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중고시기의 어음에서 성조는 陰과 陽의 분류, 즉 성모의 淸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주장으로 일관되어 왔다. 즉 四聲의 음가는 발음상의 차이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뉘는 데, 예를 들면 平聲은 陰平과 陽平으로 분류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張麟之는 『韻鏡』의 서두에서 말하기를 :

상성 중 탁음의 위치에 있는 운자는 마땅히 거성이라 부른다.(上聲濁位並當呼爲去聲)¹⁾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永祿本韻鏡>序, 江蘇教育出版社, 2002, 韻鏡 4쪽 참조

란 대목은 당시 全濁聲母가 去聲으로 변화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張麟之의 문장에 관하여 李新魁는 動, 道 등의 全濁聲母上聲字는 宋代에 이미 濁聲母去聲字로 변하였고, 당시 上聲중에서는 淸聲母인 上聲字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 全濁聲母의 上聲字가 去聲으로 변하기 전에 中原의 漢語 聲調는 아마도 陽聲母 上聲字들이 있었을 것이나 단지 唐宋시기에 와서 陽聲母 上聲인 字들이 陽聲母 去聲으로 변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러한 全濁聲母上聲字의 변화에 대한 예증을 실제로 다수의 학자들이 시운에서 나타나는 上去聲合韻 현상에서 찾고 있다. 白居易의 琵琶行에서는 上去聲合韻 현상 높은 출현 빈도를 보여주고 있는 데, 그 중 상당수가 全濁聲母 上聲字와 去聲과의 合韻한 예들이다. 바로 이러한 예들을 다수의 학자들은 全濁聲母上聲字 音變현상의 중요한 예로 보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해 본다. 첫째, 이러한 詩韻중의 上去聲合韻 현상이 과연 全濁聲母上聲字의 音變을 대변해주는 예로써 손색이 없는 것일까? 둘째, 발음방법의 변화가 성조변화의 충분조건이라 보아도 될 것인가?

楊耐思는 이러한 학계의 통념에 대해 매우 예리한 일침을 가하고 있다. 그는 실제로 唐宋의 詩韻들 중 全濁上聲字가 去聲과 合韻하는 현상이 실제 淸聲母上聲字가 去聲과 合韻한 현상보다 훨씬 적은 빈도로 출현하는 현상을 예를 들어 이러한 방식의 통념은 오류임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필자는 河南지역 출신²⁾ 詩人들의 시를 조사 분석한 결과 上去聲合韻 현상이 역시 매우 높은 출현빈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고는 河南지역 출신 시인들의 詩韻현상 중에서 높은 출현빈도를 나타내는 上去聲合韻 현상과 全濁聲母上聲字의 출현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과연 어떤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아

2) 본고에서 설정하는 하남지역 출신 시인이라 함은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籍貫이 하남인 경우, 둘째 하남에서 童年 시절 (적어도 16세까지)를 하남에서 보낸 경우, 셋째 籍貫은 아니지만 실제 하남에서 거주하였던 시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고에서 의거한 하남시인에 관한 연구자료는 陳尙君 〈唐詩人占籍考〉 《唐代文學叢考》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7, 138~170쪽 참조

올려 본고의 고찰 중 실제 上去聲合韻현상이 과연 全濁聲母上聲字의 音變을 나타내는 실증이 될 수 있는 지를 살펴보고, 발음방법의 변화가 성조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지에 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本論

2.1. 上聲과 去聲이 合韻되는 현상 분석

하남시운에서 上去聲合韻현상은 적지 않다. 그중 대표적인 시인은 杜甫, 韓愈, 李賀, 王建, 張祜, 李商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河南詩韻에서 上聲과 去聲이 合韻되는 현상이 출현한 현상을 표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몇 가지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우선 河南詩韻 중 初唐시기 上去聲合韻의 현상은 비교적 적게 보인다는 것과, 河南詩韻 중 盛唐시기로 갈수록 上去聲合韻의 현상은 점점 많아지고, 출현 韻字도 점점 풍부해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자료의 제한성과 詩首를 고려하지 않은 특징이므로 그다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남시운에서 上聲과 去聲의 合韻현상을 조금 더 깊숙이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좀더 전면적인 고찰 방법을 취해 보기로 한다. 아래의 표는 「廣韻」의 성조 분류를 기준으로 우선 크게는 上聲, 去聲, 上聲去聲의 3항목으로 나누었다. 이들 중 上聲과 去聲의 合韻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非全濁聲母上聲字와 全濁聲母上聲字로 나누어 각각의 合韻 현상을 두 항목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표 중, 각 칸에 나타난 숫자는 하남시운에서 출현한 韻段수이며, 우측과 하단의 통계 수치는 출현 韻段수의 합계를 의미한다.³⁾

3) 韻段이란 用韻研究에서 쓰이는 용어로서 각 押韻현상이 일어난 현상을 세는 기본단위를 말한다. 즉 合韻을 비롯한 모든 押韻이 일어난 현상을 하나의 韻段으로 정한다.

(표1)

時期	聲調 詩人	上聲	去聲	上去聲		計
				非全濁上聲類	全濁上聲類	
初唐	鄭世翼		1			1
	杜審言			1		1
	張說	24	17	1		42
	元希聲	1	1			2
	崔日用	1				1
盛唐	沈佺期	6	4	1		11
	崔曙	2	1	1		4
	崔顥	16	4	2		22
	杜甫	74	60	8	6	148
	元結	16	20	2	1	39
	賈至	3	1	1	1	6
	張謂	3				3
	孟云卿	3	2			5
	獨孤及	4	3	3	1	11
	韓雄	27	11	2	1	41
	祖永		2			2
	盧僎	3				3
	姚系		1			1
	盧鴻一	2	2	1		3
	王灣				1	1
中唐	楊於陵	1				1
	李翱		1			1
	李渤	2	3			5
	李益	10	9	1	1	21
	武元衡	7	3	2		12
	王建	45	28	23	9	105
	韓愈	59	41	4	5	109
	姚合	5	1	2		8
	李賀	59	22	46	6	133
	孟簡		1			1
	鄭絀		1			1
	劉禹錫	57	50	3		110
	許渾		1			1
	張祜	5		1		6
	李涉	19	14		3	36
晚唐	李商隱	10	16	7	8	41
	楊嗣復	2				2
	呂從慶		2		1	3
計		466	323	112	44	945

앞의 표1의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 낼 수 있다.

우선 初唐시기 上聲字가 去聲字와 合韻하지 않고 단독으로 출현한 상황은 26번이며, 이는 전체 上聲字가 출현한 빈도의 53.06%를 차지한다. 去聲역시 合韻하지 않은 예는 19번으로 41.30%를 차지한다. 初唐시기 上聲, 去聲이 같이 合韻한 예는 단지 2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盛唐시기에 上聲字가 단독으로 출현한 상황은 159번 출현하며, 이는 52.65%를 차지하고, 去聲역시 단독으로 출현한 경우는 111번으로 36.42%를 차지한다. 上聲, 去聲이 같이 合韻한 예는 32번으로 10.60%를 차지하며, 이중 全濁上聲字가 去聲과 合韻한 韻段수는 11번으로, 이는 非全濁上聲字가 去聲과 合韻한 韻段과의 백분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의 34.38%를 차지한다. 이러한 현상은 盛唐시기 上聲과 去聲이 合韻하는 현상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당시기로 오면서 上聲字가 단독으로 출현한 것은 269번이며, 이는 48.91%를 차지하고, 去聲역시 단독으로 출현한 경우는 175번으로 31.82%를 차지한다. 上聲, 去聲이 같이 合韻한 예는 106번으로 19.27%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全濁上聲字의 출현은 24번으로 역시 22.64%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中唐시기로 오면서 仄聲韻의 押韻현상이 점점 많아지고는 있으나 全濁上聲字의 출현은 오히려 적어졌다는 점에 주의를 해 볼 수 있다. 晚唐시기로 오면서 河南출신시인이 적고 그 詩首역시 적으므로 仄聲韻을 사용한 押韻상황역시 상대적으로 적게 출현하는 양상을 보인다. 上聲字가 단독으로 출현한 것은 12번이며, 去聲단독으로 출현한 경우는 18번이다. 上聲, 去聲이 같이 合韻한 예는 16번으로, 이중 全濁上聲字의 출현은 9번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仄聲韻의 合韻상황을 韻段수를 들어 통계를 내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2에서의 上聲押韻과 去聲押韻란은 上聲과 去聲이 각각 단독으로 압운한 상황을 나타내며, 上去聲合韻란은 상성과 거성이 합운한 상황의 출현빈도를 나타낸다. 上去聲合韻란은 全濁聲母上聲字와 非全濁上聲字로 나뉘는데, 이 역시 각각의 출현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2)

上聲押韻	去聲押韻	上去聲合韻	
		156번 (16.51%)	
466번 (49.31%)	323번 (34.18%)	全濁聲母上聲字 44번(28.21%)	非全濁聲母上聲字 112번(71.79%)

이상은 韻段의 출현빈도의 측면에서, 당시 仄聲韻간의 押韻현상이 출현한 상황을 살펴보았다. 실제 韻段의 출현빈도의 상황에서 본다면 非全濁上聲字의 출현수는 전체의 71.79%를 차지하고 있고, 全濁上聲字의 출현수는 나머지 28.21%를 차지하고 있다. 즉 韻段의 출현 빈도상황에서만 본다면 全濁上聲字는 그다지 높은 출현 빈도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각각의 韻字의 출현상황은 어떻게? 만약 韻字간 聲母의 清濁상황을 살펴본다면 좀더 정확히 그 현상의 의미를 파악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聲母의 清濁상황 중 全濁聲母上聲字와 非全濁聲母上聲字의 정확한 출현한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河南시운 중 聲母의 清濁상황을 살펴보면 네 가지 押韻형식을 귀납해 낼 수 있다. 첫째 全清上聲字가 去聲과 合韻하는 방식, 둘째 次清上聲字가 去聲과 合韻하는 방식, 셋째 全濁上聲字가 去聲과 合韻하는 방식, 넷째 次濁上聲字가 去聲과 合韻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방식에 따라 河南시운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통계수치를 얻어 낼 수 있다.

(표3)

全清上聲字	次清上聲字	次濁上聲字	全濁上聲字
75번 (36.23%)	20번 (9.66%)	42번 (20.29%)	70번(33.82%)
非全濁上聲字			
137번 (66.18%)			

지금까지 河南詩韻 上去聲合韻현상 중 全濁上聲字가 去聲과 合韻을 한 상황과 非全濁上聲字가 去聲과 合韻을 한 상황을 韻段과, 韻字의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두 가지 측면의 분석을 통해 필자는 두 가지 분석 결

과가 매우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어 낼 수 있었다.

즉 河南시운의 上去聲合韻현상 중 全濁上聲字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고, 실제로 非全濁上聲字가 더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는 당시 上去聲合韻 현상은 실제 어음변화의 반영이었다는 해석보다는 왕력의 해석처럼 당시 시대상의 조류였기에 가능하였다는 설에 확신을 심어주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의 통계가 당시의 全濁上聲字의 실제 양상을 대변해줄 수 있는가 하는 점과, 河南詩韻에서 나타난 上去聲合韻의 예들은 과연 당시의 全濁上聲字의 실제모습을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관한 해답은 全濁上聲字의 출현현상을 전면적으로 재고찰하는 과정에서 찾아보도록 하겠다.

2.2. 全濁上聲字의 出現 현상 분석

王力은 唐代 古體詩 중에는 平聲韻을 押韻하기도 하고 또 仄聲韻을 合韻할 수도 있었다고 고증하였다. 또한 仄聲韻중에서는 서로 다른 성조끼리는 合韻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上聲과 去聲만은 우연히 合韻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출현 양상을 살펴보면 唐五代시기 河南詩韻중의 上去聲合韻 현상은 이미 당시 보편적인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적지 않은 출현 빈도를 보여 주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당시의 河南詩韻중 上去聲合韻현상이 이토록 많이 출현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全濁上聲字의 合韻 현상을 통해 이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河南詩韻중 全濁聲母를 포함하고 있는 韻段의 출현 양상을 살펴보면 세 가지의 押韻방식으로 귀납할 수 있는 데, 이는 全濁聲母上聲字가 上聲과 押韻한 방식, 全濁聲母上聲字가 去聲과 合韻한 방식, 그리고 全濁聲母上聲字가 다른 上聲韻字, 去聲韻字와 같이 合韻한 방식이 그것이다. 그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4는 전탁성모상성자의 출현 양상을 도식화 한 것이

다. 표4는 전탁성모상성자가 출현한 3가지 합운 방식으로 나누어 보았다. 표의 좌측 첫 번째 상성이라 표시한 란은 全濁聲母上聲字가 상성간 압운한 현상의 출현빈도를 나타낸 것이고, 거성이라 표시한 란은 全濁聲母上聲字가 거성과 압운한 현상의 출현빈도를 나타낸 것이며, 상거성이라 표시한 란은 全濁聲母上聲字가 다른 상성자와 거성자간 합운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표4)

上聲	去聲	上去聲
73.47%	12.93%	13.60%
26.53%		

이처럼 韻段의 출현 빈도로 보았을 때, 당시 全濁聲母 중 去聲과 같이 合韻한 빈도는 역시 그다지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어떠한 全濁聲母上聲字가 河南詩韻 중 출현하였는 지를 도식화 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時期	詩人	河南詩韻에서 출현한 全濁上聲字	河南詩韻중 去聲과 合韻한 全濁上聲字
初唐	張說	後婦待在罪倍道抱斷緩靜上像盪	
盛唐	沈佺期, 崔曙, 獨孤及, 崔顥, 杜甫, 元結, 賈至, 張謂, 孟云卿	柱戶聚坐墮下厚後否似市是仕兒弟重待在道浩吳抱早斷盡近靜並迨上仗動	柱似兒早盡近靜上重祀
中唐	楊於陵, 李翱, 李渤, 李益, 武元衡, 王建, 韓愈, 姚合, 李賀, 孟簡, 鄭綯, 劉禹錫, 許渾, 張祜	柱戶肚矩父輔坐墮禍厚後卑涖幾似祀市妓士仕待在駭罪倍道浩早斷機伴盡近靜並幸上仗動重漸寧	柱戶坐墮厚後似祀妓在道浩機伴盡近並上嬌
晚唐	李商隱, 楊嗣復, 呂從慶	是薺弟在待道伴上重丈	是弟在待伴上重丈

이상은 당시 河南詩韻 중 全濁聲母가 출현한 韻字의 상황을 전면적으로 도식화 해 본 것이다. 위의 도표를 살펴보면 唐代河南詩韻에서 출현하였던 全濁

上聲字 중 실제 去聲과 合韻한 韻字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다수의 全濁上聲字가 거성과 合韻하지 않고, 단순히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河南지역 출신의 작가가 아닌 다른 작가들의 上去聲合韻현상에선 어떤 양상을 띄고 있을까? 당시 河南詩韻 중 全濁上聲字가 출현한 상황을 동시기 다른 압운연구 자료의 통계와 비교를 해 보면 다음과 같다. 비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白居易와 河南과 근접한 지역인 北京, 關中지역의 시운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아래 표6중 첫줄 좌측 두 번째란의 '총 韻字수' 라 함은 각 시운 중 全濁聲母上聲字가 출현한 총 운자수의 합계를 뜻하며, 각 란에서의 '韻字수' 라 함은 역시 각 현상간 출현한 全濁聲母上聲字 운자수의 합계를 뜻한다.

(표6)4)

	총 韻字 수	上聲간 押韻한 全濁上聲字		去聲과 合韻한 全濁上聲字		上去聲 合韻한 全濁上聲字	
		韻字數	百分率	韻字數	百分率	韻字數	百分率
白居易	69	39	56.52%	15	21.74%	15	21.74%
北京	49	33	67.35%	4	8.16%	12	24.49%
河南	59	22	37.29%	6	10.17%	31	52.54%
關中	105	45	42.88%	9	8.57%	51	48.57%

위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당시 河南詩韻 중 全濁上聲字 출현 양상은 北京, 關中の 출현 상황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과 그 통계치수는 北京지구와 關中지구 詩韻 출현횟수의 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용운연구 저작에서는 이러한 도식화를 통하여 濁上變去의 예증으로 제시하고 있는 데, 그러나 위의 도표가 全濁上聲字의 去聲화를 나타냈

4) 본고에서 인용한 연구자료는 國赫彤 〈從白居易詩文用韻看濁上變去〉《語言研究》1994년 增刊, 儲泰松 〈唐五代關中文字用韻〉南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00, 丁治民 〈唐五代北京地區詩文用韻〉南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00 등이다.

던 예라 단정 짓기에는 많은 부분이 미진하다. 즉 위 도표 역시 출현 상황에 의존한 것이고 그 실제음가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에는 역시 미흡하다.

그렇다면 唐代 河南詩韻에서 去聲과 合韻하였던 全濁聲母上聲字가 현재 方言지구에서 나타나는 실제 양상을 살펴본다면 좋은 참고의 자료가 될 것이다. 아래 표7은 당시 출현하였던 全濁聲母上聲字 중 현대방언에서 발음되고 있는 音價가 어떠한 지를 살펴본 것이다.⁵⁾

(표7)

	中古音	近代音6)	現代方音7)				
			北京	西安	洛陽	蘇州	溫州
柱	遇合三上寘澄	去照模	tʂu'	pfu'	tʂu'		
戶	遇合一上姥匣	去曉模	xu'	xu'	xu'	ɦəu'	'vu
似	止開三上止邪	去心思	sɿ' sɿ'	sɿ' 'sɿ		zɿ'	'zɿ
祀	止開三上止邪	去心支思	sɿ'	sɿ'		zɿ'	'zɿ
市	止開三上止禪	去審支思	ʂɿ'	sɿ'		zɿ'	'zɿ
是	止開三上止禪	上禪支	ʂɿ'	sɿ'		zɿ'	'zɿ
待	蟹開一上海定	去端皆來	tai' 'tai	tæ'	tæ'	dE'	'de
在	蟹開一上海從		tsai' tai'	tæ'	tæ'	zE'	'ze(文) 'zn(白)
道	效開一上皓定	去端蕭豪	tau' 'tau	'tau	tɔ'	dæ'	'dɔ
厚	流開一上厚匣	去曉侯	xou'	xou'	xou'	ɦɿv'	'ɦau
早	山開一上阜匣	去曉寒	xan'	xæ'	xan'	ɦɔ	

- 5) 만약 당시 출현하였던 全濁聲母上聲字의 모든 韻字들 모두 재구해 볼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실제 자료의 부재와 부족으로 인해 아래의 韻字들만 살펴 볼 수 있었다.
- 6) 본표에서 인용한 近代音의 音韻위치는 李珍華, 周長楫 <漢字古今音表>(修訂本), 中華書局, 1999을 참조하였다. “去照模”라는 것은 去聲照聲母模韻이라는 뜻이다.
- 7) 본표에서 인용한 現代方音의 擬音은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語音學教研編 <漢語方言字彙> 第二版, 文字改革出版社, 1989을 참조하였다.

표7을 살펴보면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北京이나 西安의 방음과 洛陽 방음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비록 “似”자는 上聲의 성조를 보류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성모에서의 차이가 아니고, “투”자 역시 약간의 발음상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 역시 韻母에서의 차이일 뿐 聲母나 성조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상대적으로 蘇州와 溫州방음은 이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蘇州와 溫州방언 대다수가 全濁聲母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溫州방언에서는 심지어 성조마저도 上聲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近代音에서는 이미 全濁聲母上聲字는 일률적으로 淸聲母화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본고의 근대음은 《中原音韻》에 의거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韻書에서의 음계는 대표적인 書面語의 특징을 잘 반영한 예로써,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당시 적어도 北方音에서는 濁上變去현상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濁上變去 현상은 당시 통용어의 발음구조상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성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왜 북방 방음에서는 필연적이었는데, 반해, 남방의 일부 방음에서는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은, 즉 현재까지 濁音인 성모가 그대로 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현상이 보이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全濁聲母의 변화와 성조의 연결고리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과연 全濁聲母가 去聲으로 변하는 현상과 당시의 上去聲合韻 현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濁上變去현상에 관하여 楊耐思는 聲調변화와 聲母와는 분명 서로간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聲母의 발음방법이 성조변화의 충분조건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즉 聲母의 발음 방법의 변화와 성조의 변화는 각각의 나름대로의 변화규율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서로간의 인과관계가 아니며, 발음 방법의 발전은 濁音淸化의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楊耐思의 이러한 주장처럼 과연 성모와 성조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일까? 이 문제의 해답을 좀더 정확하게 찾기 위해 동시기의

여타자료와의 비교를 시도해 보기로 한다.

2.3 同 時期 餘他자료와의 비교 분석

일반적으로 한 시기의 어음을 연구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다. 이중 실제 민간에서 사용되었던 자료를 찾아내어 그 어음을 분석 고찰해 낸다면 당시 민간에서 통용되던 실제어음에 상당히 근사하게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많이 인용되는 자료로 불경의 譯音자료를 들 수 있다. 불경이라 함은 당시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통용시킨 대표적인 저작물이기 때문에, 실제 그 음을 읽거나 가르치기에 어려움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통용되던 불경의 역음을 살펴 본다면 당시 통용어에서의 어음변화에 가장 근접하게 접근하는 시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玄奘(公元 600~664년)은 초당시기 인물로서 洛陽인이다. 그는 어린시절을 고향인 낙양에서 보냈으므로 그의 언어습관은 고향인 낙양에서 이미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施向東은 그의 연구에서 玄奘의 譯音은 初唐시기의 中原方音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慧琳(公元 737~820년)은 성당시기의 인물이며 지금의 長安인 이다. 그는 장안에서 不空, 三藏을 따라 밀교를 공부하였으며, 788~810년에 《一切經音義》를 편찬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譯音 역시 상당수 당시의 中原方音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河南詩韻을 비교하기에 가장 적합한 方音을 반영하는 譯音자료인 玄奘의《大唐西域記》의 譯音과 慧琳의 《一切經音義》중의 譯音을 비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⁸⁾

玄奘譯音 全濁聲母와 慧琳譯音의 全濁聲母 譯音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본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 두 저작을 비교대상으로 정하였다. 본고에서 인용한 자료는 聶鴻音 〈慧琳譯音研究〉《中央民族學院學報》1985.1, 施向東 〈玄奘譯音中梵漢對音和唐初中原方音〉《語言研究》1983.1 등이다.

다음 표8은 全濁聲母의 音價를 玄奘의 譯音과 慧琳譯音을 비교해 본 것이다. 慧琳 譯音 중의 공란은 필자가 참고한 자료 중에 제시되지 않은 부분으로서 이는 당시 없어진 音價가 아니라 1차 자료 중 출현하지 않아 재구해 내지 못한 것으로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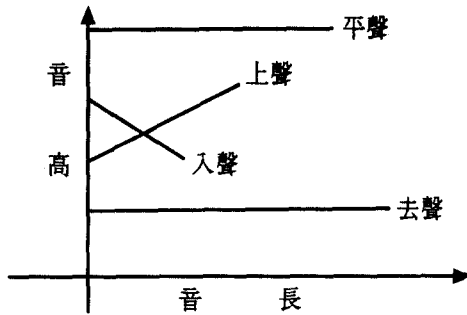
(표8)

全濁聲母	玄奘譯音	慧琳譯音
群	[g]	[gh]
禪	[dz]	
從	[dz]	[j], [jh]
澄	[d]	[dh]
定	[d]	[dh]
並	[b]	[bh]
奉	[v]	
匣	[h]	[h]

위의 표8을 살펴보면 전탁성모는 초당시기에서 성당으로 올수록 어음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音變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전탁성모의 음가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匣母만 초당부터 이미 淸化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당대시기 하남 시운에서 출현한 全濁聲母上聲字들이 匣母를 포함한 여러 全濁聲母의 上聲字가 去聲과 合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매우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는 당시 하남시운에서 보여주는 上去聲合韻 현상이 실제 濁上變去의 음변현상과는 그다지 관계가 긴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필자는 施向東의 玄奘의 譯音연구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내용을 찾아 볼 수 있었다. 施向東은 당시 성조 실제 음가를 재구하여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데, 그는 平聲은 高長調, 去聲은 低長調, 上聲은 中升短調, 入聲은 中降短調로 재구하고 있다. 그의 도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



이는 성조의 두 개념 즉 “調值”과 “調類”상의 구분이 당시에조차 차이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예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調值상의 차이에 관하여 일찍이 陸法言은 「切韻序」에서 말하기를:

秦隴방언의 거성은 마치 그들의 입성과 같고, 梁益방언의 평성은 그들의 거성과 유사하다.(秦隴則去聲爲入, 梁益則平聲似去)¹⁰⁾

라 하였다. 즉 이는 陸法言 역시 調值의 高低昇降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당시의 방언에도 이처럼 성조의 調值간의 차이가 명확히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¹¹⁾ 그렇다면 바로 《切韻》에서의 ‘平上去入’은 하나의 총괄적인 표현이며 이러한 세세한 분류를 하지 않은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調值에 관하여 羅常培 역시 성조변별의 어려움을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북경에서는 陰平 “衣”자를 高評調로 읽고, 關中人은 去聲 “意”자와 유사하게 말한다. 실제 北京에서는 “意”자를 전부 降調로 읽고, 이는 秦音의 上聲 “椅”자와 매우 비슷하다. 게다가 秦音의 去聲은 그 平聲과 유사하고 上聲은 그 去聲과 유사하다고 하였고, 각 방언의 調類는 비록 각자의 系統이 있지만 방언간의 調值와

9) 施向東 〈玄奘譯著中梵漢對音和唐初中原方音〉《語言研究》1983, 140쪽 참조

10) 汪壽明 選注 《歷代漢語音韻學文選》1986, 14쪽~15쪽, 陸法言 〈切韻序〉 참조

11) 丁邦新은 그의 논문 〈漢語聲調的演變〉에서 이러한 陸法言의 언급에 대해 吳江방언의 12가지 調가 있는 실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丁邦新語言學論文集》114~115쪽 참조.

는 일정하게 대응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北京讀陰平‘衣’字爲高平調，關中人聞之必謂與其去聲‘意’字相近，其實京音讀‘意’字爲全降調，適與秦音上聲‘椅’字相近，且可謂秦音之去聲似其平，上聲似其去也。)¹²⁾

현대에도 보통화에는 네 가지의 調類가 있으나, 실제 방언에서는 네 가지 혹은 네 가지 이상의 조류가 있고, 그 調類는 비록 같을 지라도 실제 調值에는 큰 차이가 있다. 다음 표9는 현대방언에서 북경과 서안, 낙양의 실제 調值를 비교해 본 것이다. 이 세 지역은 대표적인 北方方音 중에 中原方音을 대변하는 지역이고, 성조 역시 네 가지의 調類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실제 調值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데, 실제 音價는 다음과 같다.

(표9)

	北京	西安	洛陽
陰平	55	21	33
陽平	35	24	31
上聲	214	53	53
去聲	51	55	412

결론적으로 보면 이처럼 성조에는 調類와 調值의 차이가 있고, 실제 나타내는 양상은 크게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흔히 우리가 분류하는 平上去入은 단지 調類상의 총체적인 분류일 뿐 그 調值는 유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쩌면 당대시기 역시 이러한 차이가 매우 컸을 것이고, 押韻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調值가 실제 시인들의 압운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결국 당대 시기 全濁音이 清化를 시작하였다는 점은 이미 여러 검증 자료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으나, 실제 당대 詩韻에서 나타나는 上去聲合韻현상이 이를 증명하는 실례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보인다.

물론 어음의 변화에서 濁音이 清化할 때에 성조 역시 중요한 변화를 한다는

12) 羅常培 《漢語音韻學導論》，中華書局，1980，79쪽 참고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聲母의 발음 방법과 성조의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려면 여전히 많은 부분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여겨진다.

3. 結論

흔히들 시인들이 압운을 할 때에는 운서를 참고하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기억력이나 혹은 어감에 의거하여 압운을 하였다. 그러기엔 분명 성조의 분류가 명확히 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실제 調值상의 차이는 있으나 調類상의 분류인 平上去入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唐代에는 押韻을 할 때에 平聲은 반드시 平聲간 압운을 해야 하는 규칙이 엄격하였으므로 이러한 규칙에 의거하여 押韻을 하였을 것이나, 仄聲韻인 上聲과 去聲은 合韻을 하는 면에 대해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왕력의 주장처럼 당시의 시대적인 유행이었을 수도 있고, 또한 실제 調值에서의 유사성으로 인한 시인들의 오판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어쩌면 사실 上聲과 去聲의 合韻은 그다지 제약이 심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唐代 河南詩韻에서 나타난 上去聲合韻 양상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당시 上去聲合韻 현상은 聲母의 清濁에 관계없이 上聲과 去聲간의 合韻은 일어났었고, 비록 이러한 과정에서 全濁聲母上聲字 역시 출현을 하긴 하지만 그 빈도 면이나 출현한 양상 면에서도 별다른 특별한 특징을 찾아 볼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실제 당시의 上去聲合韻 현상이 全濁聲母上聲字의 변화를 대표하는 특성이라 하기에는 사실 많은 부분 억지스러운 감이 있다. 또한 다른 譯音자료에서의 증거가 보여주듯이 당시 全濁聲母上聲字중에서는 단지 匣母만이 清化를 하였고, 다른 전탁성모는 전탁음의 성질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唐代시기 河南詩韻에서 보여지는 匣母를 제외한 전탁성모의 거성과의 합운한 예는 濁上變去의 예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

즉 이러한 당시의 上去聲合韻 현상은 王力이 주장하듯 단순히 시대적인 조

류의 현상이었거나 혹은 실제 聲調의 音高에 유사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 즉 성조의 변화와 성모의 변화간의 함수관계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濁上變去’는 한어의 성조변화 중 매우 중요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중요한 어음변화 현상에 대한 고찰은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언어현상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라 본다. 만약 濁上變去현상이나 구체적인 方言의 성조의 變化史에 대한 자세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면 좀더 다양한 각도에서의 자료 수집과 이에 적합한 고찰방법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본다.

【參考書目】

-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語言學教研實編 《漢語方音字彙》第二版，文字改革出版社，1989
- 陳尙君 〈唐詩人占籍考〉《唐代文學叢考》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7
- 儲泰松 〈唐五代關中文人用韻〉南京大學博士學位論文，2000
- 丁邦新 〈漢語聲調的演變〉《丁邦新語言學論文集》，商務印書館，1998
- 丁治民 〈唐五代北京地區詩文用韻〉南京大學博士學位論文，2000
- 國赫彤 〈從白居易詩用韻看“濁上變去”〉《語言研究》，1994 增刊
- 李珍華，周長楫 〈漢子古今音表〉(修訂本)，中華書局，1999
- 李新魁 〈中古音〉商務印書館，1991
- 廖名春 〈從吐魯番出土文書中的別字异文看“濁上變去”〉，《古漢語研究》1989.1
- 羅常培 〈漢語音韻學導論〉，中華書局，1980
- 聶鴻音 〈慧琳譯音研究〉《中央民族學院學報》，1985.1
- 施向東 〈玄奘譯著中梵漢對音和唐初中原方音〉《語言研究》，1983.1
- 汪壽明 選注 《歷代漢語音韻學文選》上海古籍出版社，1986
- 楊耐思 〈北方話“濁上變去”來源試探〉《學術月刊》，1958

【中文提要】

研究詩歌押韻中，上去聲相押現象確實是常見的現象。有關上去聲相叶想象，王力先生說為唐代古體詩既可以押平聲韻，又可以押仄聲韻。在仄聲中，還要區別上聲韻、去聲韻和入聲韻，不同聲調一般也是不相押的，只有上聲韻和去聲韻偶然可以相押。

從前的學者對於“濁上變去”現象的史料以詩詞用韻來作根據。而楊耐思先生在《北方話“濁上變去”來源試探》一文中，提出了不同的看法。他說：“在唐宋的詩韻中，有濁上叶去的現象，但清上叶去更為多見，上去通叶成了詩韻中普遍現象，因此詩韻對於考察‘濁上變去’這一語音演變現象是不足為憑的。”

唐代河南詩人用韻中上去聲混叶既然已成為普遍的現象。而這些唐代河南詩韻中非全濁上聲字與去聲相叶的現象比全濁上聲字與去聲相叶的現象還要多見。那我們應該分清上去聲混叶的現象中什麼是混押，什麼是音變。

有關“濁上變去”起源的說法，學者意見不一致。本文試圖了考察河南詩韻上去聲相叶的現象，以之為依據，進一步探究全濁上聲字歸入去聲的情況。通過窮盡式的分析歸納，得出唐代河南詩韻中上去聲相押與濁上變去之間的遠近關係。

可見，唐五代河南詩人仄聲用韻時上去聲混叶現象並不能證明“濁上變去”，只能給我們提供某些線索。上去聲相押現象是否可以反映“全濁上變去”還有待考察。

【主題語】

上去聲合韻 全濁上聲字 濁上變去 調類 調值